꽹 과 리(釗= 小金)

1. 악기분류 꽹과리는 금속악기로서 징과 함께 양을 상징하고 가죽악기인 장구와 북은 음을 상징한다. 금속악기는 하늘의 소리로 비유되며, 가죽으로 만든 악기는 땅의 소리로 비유된다. 꽹과리는 만든 재료에 따라 8가지로 분류 할 때, 쇠로 만든 악기인 편종. 특종. 방향. 나팔. 징. 자바라. 운라와 같이 쇠로 만들어진 악기이다.

2. 유래 쇠(釗= 小金)라고 하는 이 악기는 신라 시대부터 만들었다는 것과 고려 공민왕 때 주나라에서 만들어져 중국 명나라 때 들어왔다는 기록이 있다.

3. 악기 재료 꽹과리의 별칭은 쇠. 매구. 깽매기. 깽쇠. 꽹쇄기. 꽝쇠. 소금으로 불리며 금붙이. 상납. 구리 등을 배합한 놋쇠를 원료로 만든다. 놋쇠는 구리나 아연 또는 금. 은을 섞어서 만들기도 하는데 구리의 합금 비율이 높으면 소리가 높고 맑게 나고, 아연의 합금 비율이 높거나 납을 섞어서 만들면 소리가 낮고 탁하게 나며 울림이 좋지 않고 쉽게 깨진다. 꽹과리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지름이 대략 21㎝(7치), 둘레 부분은 높이가 3.6㎝(1치 2푼)정도이다. 그러나 요즘은 사용 용도에 따라 크기나 무게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꽹과리 둘레의 위쪽으로 구멍을 2개 뚫어서 끈을 달아서 사용하는데 좋은 꽹과리는 역시 두드려 만든 방자형 꽹과리가 좋겠고, 비록 기계로 제작한 것이라도 담금질이 잘 되어 진 것이 좋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꽹과리는 소리가 좋지 않고 금방 깨지며, 가운데가 들어가 버려 제대로 성음을 낼 수가 없다. 또한 악기의 무게가 적당하여야 깊고 융숭한 소리가 난다. 또한 음색에 따라 암쇠와 숫쇠로 구분한다. 암쇠는 소리가 부드럽고 얕으며 숫쇠는 야물고 높은 소리가 나는데 흔히 상쇠는 숫쇠를 부쇠는 암쇠를 써서 음양의 조화를 이루러 치기도 한다.

4. 채 재료 재료: 알- 탱자나무. 대추나무. 박달나무. 고무. 엽전. 옥. 흑단 등 채- 대나무. 대나무 뿌리. 시누대 뿌리. 철사 -. 일반적으로 알은 단단하면서 탄력이 좋은 탱자나무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채는 영무장 지역에서는 대뿌리 보다는 시누대를 많이 사용한다. 이유는 역시 잘 부러지지 않고 탄력이 좋기 때문이다.

5. 잡기와 걸기 꽹과리채를 잡는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며 그 사람마다 서로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 손을 쥔 듯 편 듯 하며 마치 계란을 손위에 올려놓은 모양으로 힘을 주지 않고 가볍게 채를 쥔다. 다음으로 꽹과리를 걸기에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손가락 전체를 꽹과리 안에다 넣어 치는 것으로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소리를 조절 할 수 있고 음량이 적어 실내 연주나 다른 악기와 협연을 할 때 주로 쓰인다. 둘째, 엄지를 꽹과리 밖에 내어놓고 치는 방법으로 사물놀이를 할 때 주로 사용되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셋째, 엄지와 검지를 내어놓고 치는 방법이 있는데, 꽹과리 안에서 소리를 막아주는 부위가 적어져 음량이 커서 실외 연주나 많은 사람과 연주 할 때 쓰여지며, 일반적으로 굿을 친다 할 때의 거는 방법이다. 이렇게 꽹과리를 손에 걸고 가장 높을 때는 코끝 이상으로 올리지 말고, 가장 낮게 칠 때에도 가슴 아래로 내리지 않으며, 가슴 앞에서 팔을 오그린 듯 펴서 손끝이 아래나 앞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살짝 위를 향하게 하여 위치하면 된다.

6. 타점 과 치기 꽹과리를 치는 자리가 타점이다. 타점은 꽹과리를 잡는 방법이나 연주의 내용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중심과 가장자리의 중간을 치는 것이 좋다. 꽹과리의 가장 위 부분에서 아래로 수직으로 선을 긋고, 자기의 몸에서 바깥으로 선을 그어서 바깥쪽의 상단 가운데가 치는 타점이다. 그렇지만 연주자의 기량에 따라 타점은 꽹과리 전체로 확장되어 간다. 꽹과리 소리는 다양한 소리를 내는데 이는 힘의 세기와 약하기, 꽹과리 잡은 손의 막음새의 정도에 따라 울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등 여러 가지 방법과 기술적인 부분에 의하여 소리가 나는데, 물음지기 굿판에서의 꽹과리 소리는 마치 황소가 울음우는 소리처럼 나야 한다고 한다. 한숨을 들어 마시어 내쉬면 그것이 호흡인데, 꽹과리를 칠 때 앉아서 칠 때는 허리로, 서서 칠 때는 다리를 굽혔다 펴주는 오금으로, 움직일 때는 한 걸음을 걷는 것이 호흡이다. 이 호흡에 의하여 연주를 하는데 꽹과리를 흔들지 않고, 박수를 칠 때처럼 팔꿈치로 날개 짓을 하듯이 돌려서 친다. 꽹과리를 연주 할 때 가볍게 생각하거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중 하나가 접지라는 것인데, 접지는 꽹과리를 건 손을 움직여 똑 같은 가락이라도 전혀 다른 맛을 내주며 꽹과리 소리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것을 말한다. 손을 넣는 부위에 따라 손가락 접지. 손바닥 접지 등이 있고, 넣는 순간에 따라 뒷접지. 앞접지. 막고치기 등이 있다.